

사회

■ 명절 불우이웃에 과일상자 '얼굴 없는 기부천사' 인터뷰

“어려운 사람 심정 겪어봐서 잘 알죠”



지난 2008년 9월 11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 배 570상자가 배달됐다. 며칠 전 “구청에 과일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있다. 신원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과일을 차량으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은 터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구청 광장에 나가본 복구 복지사업과 직원들은 수북이 쌓인 배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배달을 마친 기부자는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초수급대상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 그는 지난해 9월과 12월, 올 1월과 9월 등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과일상자를 보내왔다. 지금까지 복구에 기부한 배·귤만 3천 상자에 육박한다.

도대체 누구일까. 광주일보는 곳곳을 수소문한 끝에 지난달 30일

어렵사리 그를 찾아내 인터뷰를 요청했다.

주인공은 온라인 과일 도매상인 김모(38)씨. 그가 처음으로 과일을 기부한 것은 지난 2006년. 보육원·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배·귤·사과

사업실패 한 때 거리로...아이 분유값 없어 물타 먹여

“세상이 아름다우면 우리 사회 숨은 천사 많기 때문”

상자를 보내면서 ‘기부천사’의 선행은 시작했다.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8년 9월부터는 북구청에 과일을 기부하고 있다.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나도 한 때 하던 사업이 망해 길거리에 내 앉은 적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나에게 ‘기부천사’라는 말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영암에서 단감 농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감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 원의 빛을 지게 됐

다. 단감 농장을 운영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세 식구의 가장이던 그는 두 세 살 된 어린 자녀에게 먹일 분유조차 사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 친·인척에게 손을 빌려 어렵게 산 분유는 물에 타서 두 자녀에게 먹였다. 분유의 양을 조절해 며칠 더 먹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씨

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마음을 다잡은 김씨는 ‘온라인 과일 도매업’에 뛰어들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귤·사과 등 과일을 택배로 보내주는 것이다. 타고난 성실함에 사업은 점차 번창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김씨는 “누구 하나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넨 사람 없었다. 저절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울 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숨은 천사들이 많은 것 같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라며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그는 끝내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땡갈 호랑이 새끼 ‘아이, 러브, 기아’

우치동물원 오늘부터 공개

아프리카 사자 새끼 3마리도



광주 우치동물원의 땡갈 호랑이와 아프리카 사자 새끼가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달 30일 광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아 그간 정성을 들여 키워온 땡갈 호랑이 새끼 3마리(사진 위와 아프리카 사자 새끼 3마리(사진 아래) 등 모두 6마리를 1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땡갈 호랑이 3마리는 지난 6월 6일 태어났고 아프리카 사자 3마리는 지난 7월 31일 출생했다. 우치동물원 측은 땡갈 호랑이 3마리가 기아 타이거즈의 상층부가 이어지던 중 태어난 점과 한국시리즈 10번째 우승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아이, 러브, 기아’로 부르기로 했다.

우치동물원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어른 1천500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700원이다. /이종행기자 golee@

나원침 (7917) 김중동



김선문 시의원 직위상실형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역역사업 입찰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경희기자 choice@

은행 총돌 차인 ‘권총 라이터’ 소동

○추석을 앞두고 승용차가 한국은행 건물을 들이받은데 이어 은행관개자가 권총 모양의 라이터를 실제 권총으로 오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치령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외벽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와 동승자는 30여분간 현장에서 머물다 차를 두고 달아났다. 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CTV를 보니 운전자가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은행측의 말을 전해 듣고, 차량 뒷좌석에서 권총(?)을 발견하자 은행 무장강도 사건으로 판단해 지원을 요청.

○하지만 확인 결과, 운전자가 권총 모양의 라이터를 들고 담배에 불을 붙였고 이를 뒷좌석에 놔둔 것으로 결론. /이종행기자 golee@

광주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 80% 전국 최고

시교육청 지원률은 최저

광주지역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률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학부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률 급식에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 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지우면서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교조 9명 징계위 회부

광주·전남 교육청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대상은

시·도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가 4명, 전남은 5명이다.

시·도교육청은 이들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전교조 1.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견용 의장 사퇴

전남도교육위, 사임건의안 처리

전남도교육위원회 서견용 의장의 의장직을 사퇴했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를 열고 서 의장이 제출한 사임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찬성 6명, 무효 1명, 반대 1명)를 거쳐 처리했다.

서 의장은 임시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삶이 순풍에 돛을 달고 잘나갈 때도 있지만, 살다보면 오늘처럼 역풍을 맞기도 한다”면서 “언론(광주일보)에 교육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이 보도된 것도 모두 내 탓이고, (교육위원회가)단결하지 못한 것도 모두 내 탓인 만큼 의장직에 미련은 없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지난해 9월 제 5대 하반기 의장에 선출된 지 1년여 만에 물러났다.

전남도교육위는 이날 초 교육위원을 이유로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에 서명해 파문이 일었다. 더욱이 불신임 파동 과정에서 의장직을 노린 일부 위원들의 ‘의정적 나뉘먹기’ 추태와 의장 선거 당시 급풍 수수, 이권·인사계급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불신임 파동은 교육위가 처음 개원했던 지난 1991년 박동수 의장의 불신임안이 당선 2개월 만에 가결된 이후 두 번째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임시회를 열어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후임 의장으로는 지난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주류 측이 지지했던 한모 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식수원 주암호·동복호

조류경보·주의보 해제

광주·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와 동복호에 발령됐던 조류경보·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4일 주암호(범양)에 발령된 조류경보와 전남 8월 21과 27일 동복호와 주암호에 내려진 조류주의보를 해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7분 / 해질 18시 17분 / 달출 16시 32분 / 달몰 03시 20분

빛길 운전 조심하세요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2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예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남, 남원, 옥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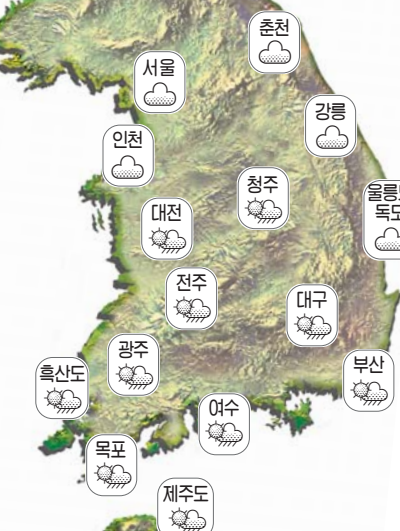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Time (오전/오후), Direction, Wind Speed, and Visibility. Includes data for 서해 남부 앞바다 and 남해 서부 앞바다.

Table with 4 columns: Time (오전/오후), Direction, Wind Speed, and Visibility. Includes data for 서해 남부 앞바다 and 남해 서부 앞바다.

Table with 7 columns: Day (날짜), Day (날씨), and High/Low (최저/최고). Shows weather forecast for days 2 through 7.

Large advertisement for 'WeLife' (www.welife.co.kr) featuring a stack of product boxes and a list of distributor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istributor '대성주식회사 헬케어비즈니스사업본부'.